



벌써 비치발리볼 계절이 왔네!

30일 서울 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에서 개막된 세계여자비치발리볼 월드컵대회에서 브라질 레일라 선수가 캐나다 마틴-쿠케초와의 경기에서 몸을 날려 공격을 막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과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경기 4회말 1사, 요미우리 이승엽이 좌월 솔로 홈런을 친 뒤 날아가는 공을 바라보고 있다.

이승엽 12호 홈런

한동안 침묵에 빠졌던 이승엽(요미우리 자이언츠)의 홈런포가 11일만에 불을 뿜었다.

이승엽은 30일 도쿄돔에서 열린 일본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와 인터리그 경기에서 1루수 겸 4번타자로 선발 출장, 0-0으로 팽팽하게 맞서던 4회말 1사 볼카운트 2스트라이크 3볼에서 상대 좌완 선발투수 와다 쓰요시의 7구째 슬라이더(130km)를 밀어쳐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홈런을 터뜨렸다. 시즌 12호째.

인터리그 들어 타격이 주춤했던 이승엽은 19일 주니치 전 이후 8경기만에 터진 홈런으로 교류전 홈런왕 3연패를 향해 다시 시동을 걸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시즌 3승 내가 먼저”

KLPGA 서경 오픈 내일 개막

2승거둔 지은희·안선주 신경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힐스테이트 서경 여자오픈(총상금 3억원)이 6월1일부터 3일까지 경기 광주 뉴서울골프장 북코스(파72·6천430야드)에서 열린다.

이미 시즌 2승을 챙긴 지은희(21·캘러웨이·왼쪽)와 안선주(20·하이마트·오른쪽)중 누가 먼저 3승을 차지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여자오픈에서 3주 연속 우승 문턱까지 갔다가 마지막날 악재인 퍼트에 발목을 잡혀 안선주에게 우승컵을 내준 지은희는 상승세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다짐이다.

그러나 올 시즌 5~6승을 챙겨 ‘상이란 상은 다 받고 싶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는 안선주의 욕심도 만만찮다.

한국여자오픈에서 아쉽게 공동 11위에 그쳐 15개 대회 연속 톱10 진입에 실패한 신지애(19·하이마트)는 시즌 2승과 함께 통산 상금 5억원 돌파에 도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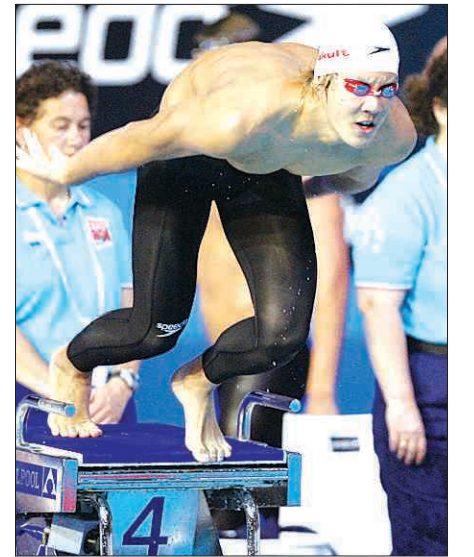
지금까지 프로대회 통산 4억6천여만원의 상금을 챙긴 신지애는 우승 상금 6천만 원이 걸린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5억원을 넘긴다. 그렇게 되면 신지애는 김미현(30·KTF)이 4년7개월(2000년)만에 세웠던 통산 상금 5억원 돌파 기록을 3년이나 앞당기게 된다.

올 시즌 두 번이나 준우승에 그친 박희영(20·이수건설)과 서서히 정상 페이스를 되찾아 가고 있는 최나연(20·SK텔레콤)도 마수결이 우승에 목마르다.

대회가 열리는 뉴서울골프장 북코스는 페어웨이의 경사가 심하고 그린도 상당히 빠르게 조성돼 있다.

페어웨이의 오르막이 심하고 그린의 경사도 급한 14번홀(파4·405야드)과 티샷 공략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9번홀(파4·410야드) 등이 승부처로 손꼽힌다.

주최측은 한국 입양아 출신으로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토비 도슨(29·한국명 김수철)을 프로암대회에 초청하고, 대회기간 차선 기금을 모아 홀트아동복지회에 기탁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태환 전신수영복

내달 초 완성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도)을 위한 전신수영복이 다음달 초에 완성된다.

박태환 후원사인 수영용품 전문 브랜드 ‘스피드’는 박태환이 일본에 있는 스피드 연구소에서 제작된 전신수영복 2벌을 지난 28일과 29일 시범 착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스피드는 4월 초 박태환의 몸을 174개 부분으로 나눠 정밀 측정해 전신수영복을 제작, 이달 중순 제공했지만 박태환이 몇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는 바람에 세부 사항을 보완한 수영복을 다시 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박태환 몸에 딱 맞지는 않았다. 손익배 스피드 마케팅 팀장은 “박태환이 직접 입어본 뒤 세팔 쪽에서 물이 들어온다는 지적을 했다”며 “이 부분을 보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다음달 초에는 완성품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신수영복은 피부처럼 몸에 딱 달라붙어 아무 것도 입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야 한다. 이 때문에 전용 수영복을 제작하는데 수차례 보완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과정이 복잡해도 전신수영복은 박태환의 경기력 향상 및 기록 단축에 확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때 박태환은 스피도가 제작한 반신 수영복을 입고 “하체가 가벼워지고 물에 뜬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상체까지 뜬다”라고 신기해했다.

남은 과정은 전신수영복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것. 그동안 물에 뜨는 하체에 상체 균형을 맞춰왔지만 상체까지 물에 뜨면 균형 감각을 다시 조절해야 한다.

박태환은 이 전용 전신수영복을 입고 8월 21일부터 일본 지바에서 열리는 일본오픈국제수영대회(프레올림픽)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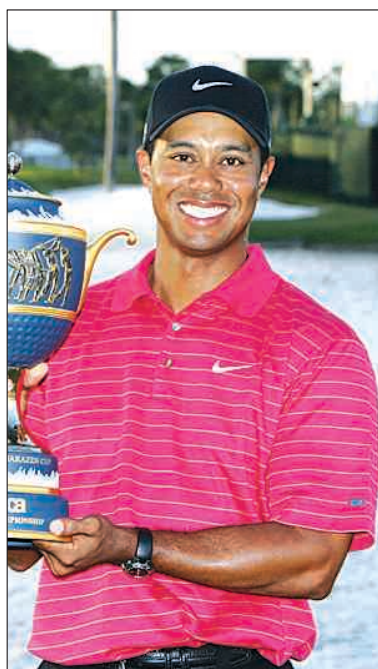
슈퍼 루키 김경태 이달의 신인왕 뽑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는 시즌 2승을 거둔 ‘슈퍼 루키’ 김경태(21·신한은행)가 ‘하나는행 이달의 신인왕’ 첫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김경태는 개막전인 SBS코리아투어 토마토저축은행오픈과 GS칼텍스매경오픈을 잇따라 석권하는 등 시즌 초반 4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 신인왕 포인트에서 802점을 획득, 이승호와 최희재 등 경쟁자들을 크게 따돌렸다.

신인왕 포인트와 함께 상금 랭킹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김경태는 ‘씨티은행 마스터카드 대상’ 포인트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골프황제의 갈등?

‘대회 출전이 우선이나, 첫 야기 출산이 먼저냐’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자신이 주최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내셔널대회 출전을 앞두고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7월5일(한국시간) 밤 미국 메릴랜드주 포토포의 콩그레스셔널골프장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우즈가 호스트로 나서 개최하는 제1회 대회다.

짐 퓨릭(미국), 애덤 스콧(호주), 대런 클라크(북아일랜드), 저스틴 로즈(잉글랜드) 등 귀한 손님을 초대해 놓고 집주인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즈가 그토록 고대하던 아내 엘린의 첫 야기 출산 예정일이 대회 기간과 겹쳐져 왔다.

AP와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우즈는 “대회에 출전하고 싶다”고 했

우즈 AT&T 내셔널대회 앞두고 첫 야기 출산일과 겹쳐 출전 고민

지만 “최우선 순위는 야기다. 일생에 한번 밖에 없는 경사를 꼭 지켜 봐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태어날 야기의 이름을 짓느냐 즐거움 고민을 하고 있는 우즈는 “18번홀에 있을 때 아내가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빨리 경기를 끝내고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결론은 아내 엘린이 언제 야기를 출산하느냐에 달려 있다. 출산 예정일이라는 게 그렇듯 예정일 뿐이다.

엘린이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한다면 우즈의 대회 출전은 가능하다. 하지만 예정일 보다 출산이 늦어진다면 2주 뒤인 7월19일 개막하는 브리티시오픈 출전도 장담할 수 없다. 황제의 첫 야기 탄생에 골프계의 흥행이 좌우될 전망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